

경계 밖의 문학인

— '전혜린'이라는 텍스트 —

서은주*

1. 신화화된 이미지의 대중적 소비
2. 한국 문학 제도의 주변인
3. 번역자의 자리, 내셔널리티의 균열
4. 본질화된 '서양', 반(反)속물성과 정신주의
5. 고립된 비범성, 인텔리 여성작가의 운명

* 연세대 강사

국문초록

이 글은 전해린의 삶과 문학을 한국문학제도와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번역자로서의 그녀의 자리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적 위상을 해명하고자 했다. 창작활동이 주로 주변 장르인 수필에 한정되었고 외국문학의 번역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인텔리 여성으로서의 돌출된 개인사가 신화화되어 소녀 취향의 대중성으로 향수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전해린이라는 존재는 '엄숙한' 한국문학사의 경계 밖으로 배제되어왔다. 특히 '신춘문예'와 같은 등단제도가 전후의 빈곤과 황폐함을 보상하기 위한 입신출세의 창구로서 역할했던 5~60년대의 남성중심적 한국 문단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인텔리 여성이자 서구문화를 직접 체험한, '조신한 여류'와는 거리가 먼 자유주의자 전해린은 이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문학의 번역 작업은 '서양문화'와 한국문화의 거리를 확인하고 위계화를 승인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서구문학의 체험을 통해 정신주의, 금욕주의에 심취한 전해린으로는 속물화된 욕망이 지배하는 당대 한국사회 혹은 한국문학의 영토에 안착할 수 없었다. 또한 그녀는 '유럽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을 정신주의/물질주의로 구별하여 순수하고 신화화된 '서양'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비루하면서도 전체주의적인 당대 한국사회에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본질화된 '서양'을 동일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인문학 엘리트로서의 전해린의 내면에는 현실의 속물적 부정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의 삶과 문학을 구체적 현실의 바깥에 위치짓게 만들었다.

핵심어 : 한국문학제도, 주변부 장르, 수필, 번역자, 금욕주의, 본질화된 '서양 문화'

1. 신화화된 이미지의 대중적 소비

전혜린은 짧은 생애 동안 10여 편에 이르는 외국문학작품을 번역 출간했고, 독문학자로서 19세기 독일 리얼리즘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프란츠 그릴파르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남겼다.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와 하인리히 뵐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등은 전혜린이 최초로 번역 소개한 작품들로, 독문학과 관련하여 이후 한국 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번역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산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개된 수많은 외국작가와 작품들은 그녀의 사후 번역되어 애독서가 되기도 했다. 1966년 발표된 그녀의 유고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자살한 친구가 죽으면서까지 읽었던, 그래서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간” 책, 그리고 “독일의 전몰 학도들의 배낭 속에서 꼭 발견되었다는 책”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이후 그 소설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작품’의 반열에 올랐다.¹⁾ 이처럼 번역텍스트의 선정과 관련한 전혜린의 안목은 인정할 만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수용된 외국문학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은 상당한 무게였으리라 짐작된다.²⁾ 또한 단 두 권뿐인 유고 수필집은 1960~70년대를 성장기로 둔

1) 『데미안』은 1955년 아동문학가인 김요섭에 의해 『젊은날의 수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되었다. 전혜린이 죽고 난 후 유고집의 영향으로 『데미안』을 찾는 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당시 신생이었던 ‘문예출판사’가 그 원고를 사들여 1966년에 『데미안』을 출간하였고, 5천부 넘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 시절에 1년에 5만부나 팔리는 진기록을 남겼다. 「우리 출판사 첫 책: 문예출판사 『데미안』(1966)」, 『중앙일보』, 2003.6.28.

2) 번역가로서의 전혜린의 위상은 최근 독문학의 한국수용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집적되면서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다. 김천혜는 전혜린이 번역한 독일 문학 작품들은 “우리나라 작품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호소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한국 독자들은 한국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역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훌륭한 번역”의 사례로 전혜린의 번역작품을 꼽고 있다. 차봉희는 전혜린의 번역활동이 “50년대 말 60년대 초 비로소 번역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었던 (소위) ‘현대적 독문학 수용 단계’에서

젊은이들에게 깊은 정신적 울림을 주었고, 6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남아있다.³⁾ 따라서 한국의 출판계 혹은 문학의 장(場) 안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지대하고도 지속적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혜린이 6~70년대의 일반 대중들에게, 또한 출판계와 문학계 전반에 미쳤던 이러한 영향력은 그녀의 문학적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승인에 근거한 결과라기보다 그녀의 삶과 죽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세간의 호기심, 선망과 결합하여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혜린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1955년 뮌헨으로 유학하여 4년 동안 독문학을 전공했다. 1959년 귀국하여 독문학 강의와 번역에 몰두하였던 그녀는 1964년 성균관대 교수가 되었지만 다음해 31세로 요절하고 만다. 자살로 추정되는 그녀의 돌연한 죽음은, 이미 그녀가 보여주었던 비범성과 결합하여 말 그대로 ‘전혜린’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로 완성된다. 즉 타고난 천재성, 문학에의 집념, 그리고 당대의 분위기에서 극히 드물었던 여성의 외국 유학 경험, 이혼과 또 다른 사랑, 그리고 그녀의 글에서 묘사된 그 수많은 이국적 풍경이 버물어져 바로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를 구성해 내었고, 그것이 대중에게 향수된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몰두한 번역작업이나 수필 창작의 영역은 문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천혜, 『우리의 번역문화 - 유려한 우리말 구사로 독자 심금 울려』, 『출판저널』, 1996.6.5, p.14. : 차봉희, 『독일 소설문학의 수용사적 개관』, 차봉희 편,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p.150.

- 3) 전혜린의 유고집은 그녀가 죽은 이듬해인 1966년에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와 『미래 완료의 시간 속에서』(이 책은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1981년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로 출간됨)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교보문고가 1995년에 마련한 ‘광복 이후 50년간의 베스트셀러 선정’에서 전혜린의 수필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 6~70년대의 작품으로 꼽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혜린이 그렇게 예찬했던 헤르만 헤세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베스트 3”에 올랐고 그의 『데미안』도 스테디셀러로 선정되었으며, 전혜린이 최초로 번역 소개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도 70년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조선일보』, 1995.9.8. 참조)

학의 주변부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 논의의 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녀가 남긴 일기나 편지 등, 수필류의 글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념의 독백, 치기 어린 감상의 과잉된 표출, 그리고 비슷한 의식과 정서의 반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녀의 글쓰기는 문학 연구의 텍스트로서의 중량감을 희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재봉의 지적처럼 어쩌면 이러한 '전혜린 현상'은 “문학적 가치나 문학적 의미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차라리 사회사적·정신사적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⁴⁾

그럼에도 문학, 문학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전혜린'이라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의미도 없다. 그녀의 글쓰기가 아무리 “미숙한 실존주의”, “도저한 자기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번역과 수필을 통해 이룩한 그녀의 문학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그것의 존재 의미를 논하고 그녀에게 문학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호명해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더불어 직접 경험을 통해 그녀가 재현하고 번역해낸 '서양' 혹은 '서양문화'의 신화화된 이미지가 한국 대중들에게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극적으로 복음처럼 전파되었던 상황도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결코 빠트릴 수 없는 항목이다.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녀의 개인사적 이력만큼이나 전혜린을 하나의 신화로 형성시킨 동력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재현해낸 '유럽/서양 문화'에 담긴 이국 취향의 아우라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전혜린의 글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그녀가 재현해낸 뮌헨의 슈바빙을 상상 속에서 전유하면서, 대부분 억압적이고 비루했을 자신들의 환경과 대비시키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녀를 매개로 당대의 대중들이 경험한 '서양'의 이미지는 개인의 자유와 고독이 절묘하게 조화된 공간으로서, 6~70년대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적 분위기와 대비되어 낭만적 이상향 그

4) 최재봉, 「일인칭 단수대명사의 세계」, 『자유라는 화두』(삼인, 1999), pp.229~252.

자체였다. 따라서 그녀가 재현해낸 '서양'의 이미지를 따라가 보는 일은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한국 문학 제도의 주변인

한국문학 연구자로서 유일하게 '전혜린론'을 두 번에 걸쳐 썼던 김윤식은 '전혜린'이라는 텍스트에 접근하는 의미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1973년에 쓴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전혜린론」에서는 그녀가 소설을 쓸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그의 요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거의 부재한 전혜린의 '자기 중심성'이 생을 '순간'이나 '환각' 혹은 '고립' 속에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문학이라는 관습적 장치에 스스로를 순응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⁵⁾ 이후 1991년 쓰여진 「전혜린 재론-60년대 문학인식의 종언」에서는 전혜린의 글쓰기를, 한국문학의 장르 범주에서 이탈하지만 그보다 윗길의 철학적 글쓰기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애매하게 문학관에 주저앉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문학(한국문학) 초월 및 문학 미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고립된 개인의 현상으로 전혜린의 글쓰기를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 60년대의 분화 지형도 안에서 고찰하고 있다. 김윤식은 서양작가나 문학에의 심취, 실존주의에의 탐닉이라는 전혜린의 의식은 60년대를 뒤덮고 있던 지적 허무의식에 엄밀히 대응하는 것으로, 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되도록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당대 지식인의 의식적·무의식적 편향성을 선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⁶⁾

5) 김윤식,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 『수필문학』, 1973.12.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일지사, 1974), pp.398~401.

6) 김윤식, 「전혜린 재론-60년대 문학인식의 종언」, 『작가와와의 대화』(문학동네, 1996), pp.331~4.

상당한 시차를 두고 쓰여진 때문인지, 전혜린이 한국문학이라는 제도에 편입하지 못한 이유를 주로 자폐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 성향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전자에 비해 문학사의 구도 속에서 60년대의 시대의 식과 전혜린의 의식을 결부시켜 그 의미를 해명하고 있는 후자에서는 보다 진전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실존주의나 허무주의가 전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세계였으며, 참조할 만큼 매혹적인 한국문학의 작가와 작품을 가지지 못했다는, 아니 어쩌면 그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혜린을 포함해 당대 문학인들에게 공통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김윤식이 '60년대적'이라고 규정하는 실존주의 탐닉, 지적 허무의식, 탈이데올로기적 성향 등은 상당 부분 '50년대적'인 내용과 겹쳐진다. 사실 전혜린은 부산 피난 시절 형성되었던 일종의 '문학동네'에 대학 1학년의 나이로 이미 드나들었으며,⁷⁾ 환도 후에도 명동의 다방이나 술집을 근거지로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대학의 학보나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 이미 수상이나 영화비평문 등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⁸⁾ 그럼에도 굳이 공식적인 문학활동의 시작을 잡는다면 번역작업의 경우 F·사강의 소설 『어떤 미소』를 출간했던 1956년(22세)무렵이며, 수필의 경우는 독일 유학 시절인 1958년 3월, 당시 한국일보에서 현상 공모했던 「해외 유학생의 편지」에 그녀의 글 「뮌헨의 몽마르트」가 입선하게 되면서이

7) 고은의 회고에 의하면 휴전 협정이 진행되던 부산 피난 시절 음악실이나 다방 등에서 문인들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때 전혜린도 자연스럽게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 다방은 중견 작가 신인 작가들뿐이 아니라 이일 오상원과 황운현 들도 웅기종기 모였다. 그때 법대 1학년의 여학생 전혜린, 배동순이 대담하게 다방에 나왔다. 이일 황운현 들의 자리로 전혜린의 쪽지가 날라 온다. <에트랑제들이여……>라는 사연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담배도 사주고 때때로 술값 몇 10원도 쥐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조숙한 것이다. 전혜린은 그의 내면과 그의 외계가 함께 그들 누구보다 일찍 저 자신을 표현케 한 것이다.” 고은, 『1950년대』(청하, 1980), p.269.

8) 전혜린은 유학 전 대학생 시절,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연합신문사의 문화부장이던 이봉구의 도움으로 일종의 영화 평론의 글 「바티스트에 보내는 헌사」를 『연합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다. ‘슈바빙’이라는 이국의 낯선 공간을 소개한 이 글의 매력 때문인지 이후 『사상계』(1958년 11월호)에도 「회색의 포도(鋪道)와 레몬빛 가스등」이 실리고, 59년 귀국 이후에는 『여원』과 같은 당시의 유명 여성 잡지 등을 통해 다수의 글을 발표한다. 이처럼 전혜린은 번역 작품, 수필 등을 통해 50년대의 문학 장(場) 속에 이미 발을 딛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60년을 전후해 대학생이 되었고 4·19를 자기들의 경험으로 인식했던 소위 60년대 문학인들과는 엄연한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승옥과 박태순, 김현과 김치수 등의 이른바 4·19세대가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 그녀는 이미 대학 강사의 신분에 있었다. 요컨대 ‘50년대적’인 의식과 감수성이 전제된 가운데 서구문학의 세례를 받았던 전혜린은 비록 60년대에 더 집중적인 문학활동을 벌였다 하더라도 4·19세대의 그것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10년 단위의 문학사 서술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도 결부된 것이지만, 50년대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60년대의 새로움을 고려한다면 전혜린의 의식세계는 분명 ‘50년대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혜린의 의식이 50년대 혹은 60년대의 문학의식, 감수성과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진술을 통해 한국문학과 연관짓는 방식만으로는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혜린은 ‘한국문학’이라는 제도가 인정하는 중심 장르의 글쓰기를 통해 정식으로 소위 ‘문단’에 입문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녀의 문학행위는 근대의 보편적인 문학제도의 장(場)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사의 시대의의식과 같은 내용성의 층위 안으로 포섭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1950년대 한국 문단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기성 문단의 권력화가 극대화되었던 시기로, 문학활동이 순수문예지를 축으로 집중된데다가 문예지들이 문학단체나 문단의 실체들과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 성격이 강했다. 심지어 일부 문인들은 자유당 정권과 밀착하여 부정적 의미의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예지

의 추천제도는 당대 젊은 문학 지망생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등단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어 60년대는 바야흐로 일간지의 '신춘문예'가 등단의 새로운 창구로 부상한다.⁹⁾ 더 나아가 서울대 문리대 출신들이 만든 『산문시대』처럼 학연이나 문학적 지향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는 동인지 활동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학제도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통과제의적 입문 제도는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물질적 가난과 정신적 황폐함을 보상받으려는 문학 지망생들에게는 일종의 입신출세의 창구이기도 했다. 즉 문단 입성은 분단과 전쟁으로 상처입은 자신들의 유년기에 대한 일종의 “한풀기의 방법”이었으며, 따라서 “문학을 하겠다는 뜻’보다 ‘문단에 진출하겠다는 뜻’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¹⁰⁾ 이런 문단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유한 환경 속에서 생활고의 그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장기를 보낸 전혜린의 경우 20대 초반에는 학업에 몰두하느라, 귀국 후인 20대 후반에는 이미 형성되어버린 그녀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어떤 ‘심사’를 받는 제도적 관문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당대 남성중심적 한국 문단이 전혜린과 같은 돌출된 여성 엘리트층을 수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당시의 ‘여류문단’이라는 것도 전후 문단의 보수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신한’ 부르주아 중산층의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정치적 보수주의의 체화(體化), 가부장제 의식의 내면화로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¹¹⁾ 전혜린이 부르주아 중산층이었다는 점에서는 5~60년대의 ‘여류’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녀가 보여준 비범함이나 자유분방한 기질과 의식은 동시대 여성 작가들의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했던 그녀는 남성중심적 사회가 허용하는 여성의 자리

9) 정규용, 『글동네에서 생긴 일』(문학세계사, 1999) 참조.

10) 위의 책, p.20, 112 참조.

11)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 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인하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3), p.52.

에 '조신하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밤늦도록 토론을 벌이는 술자리를 즐겼으며, 강의 시간 중에도 담배를 피울 정도로 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가부장제의 억압 아래서 상상 속에서만 일탈을 꿈꾸던 당시의 '주부' 작가들과는 달리 일종의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던 전혜린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남자들에게 의존하면서도 물질적 사치에 탐닉하는 여성들의 삶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모습은 여성의 본래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와 가정이 여성을 "비본질적으로 교육"한 결과이며, 또한 "비진정하면 할수록 여자다운 여자"라고 간주하는 사회적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¹²⁾ 여성들이 스스로 "본질적인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가질 것을 호소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전혜린이 한국 문학 제도와 화해하지 못한 것은, 달리 말하면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이 규율하고 허용하는 '여성'의 틀을 승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조신함'으로 위장한 이중성 속에서 보수화 되어갔던 '여류문인'들과의 연대의 지점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열망을 가졌던 전혜린이었지만 그녀가 놓여 있던 사회의 객관적 수준과의 화해할 수 없는 거리로 인해 결국 한국문학의 경계 안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3. 번역자의 자리, 내셔널리티의 균열

전혜린은 식민지를 거쳐 분단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5~60년대 현실에서 일본어가 아닌 서구의 언어로 읽고 생각하고 썼던, 몇 안 되는 번역가였다. 식민지 시대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던 그녀는 일본어는 물론이고,

12) 전혜린, 「사치의 바벨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민서출판, 2002), pp.180~3.

영어 그리고 독어에 능통했다. 특히 그녀는 유학 체험을 통해 당시 유럽의 다양한 문학·예술의 경향을 본고장의 언어와 감각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이다. 유학 동안은 물론이고 귀국 후의 그녀의 생활도 사실 모국어보다는 외국어로서 읽고 사고한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글 여기저기에서 원어로 읽은 독서 체험이 기록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번역·출간한 10편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실제로 번역하였다. 그야말로 번역은 그녀의 가장 흔한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렇게 쓰고 싶어 했으면서도 결국 소설을 쓰지 못한 이유를 그녀가 놓여 있는 특수한 언어 상황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단지 외국어의 개념과 사상을 그것에 대응하는 자국어 어휘의 발견이나, 의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문장 형태로 옮기는 기능적인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번역은 개념과 사상의 수용을 넘어서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더욱이 '서양'의 근대성을 따라잡아야 했던 동아시아에서의 번역은 그 자체가 '문명화 과정'이었다.¹³⁾ 따라서 근대 이후의 번역은 제국주의적 확장의 결과로 식민과 이산의 경험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세계체제의 시스템에서 '타자'와의 조우를 매개하고 그것을 통한 '주체'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⁴⁾ 그런데 전해린의 경우, 자신이 읽고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번역한 외국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문학 안에서의 '주체'의 구성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녀는 서양문화 혹은 문학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한국문학의 바깥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글에서 한국 작가나 작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한국 문학을 외면해도 좋을 만큼 한심한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13)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 2000), pp.12~30 참조.

14) 더글러스 로빈슨, 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동문선, 2002), pp.48~9 : Sakai Naok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2장 참조.

최근 한국 잡지를 보았는데 한마디로 낙담했다. 말하자면 문제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중부 구라파라는, 내가 지금 사는 위치가 나의 한국에 대한 한국다운 판단력에 그늘을 던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하여간 기막혔다. 예를 들면 창작인데 '테마'에 대한 명석한 집중이 없다. 전연 자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고 있다. 보고할 것이 없을 때(인류에)는 침묵하는 것이 예의인 것이다. 인쇄된 글자는 이미 책임을 갖는 것이라는 조그만 사실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한심스러웠다. 추악한 사실성에만 집착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면 또 조금 야심이 있다는 글은 꼭 열등생의 논문 같다. 허세와 역지의 지성은 이미 지성이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관념과 언어와 수치감도 없이 유희하고 있다. 서구의 지성을 지향해줘! '한국적'으로 머물지 말아줘!¹⁵⁾

냉소와 독설에 찬 이러한 평가는 분명 한국적 맥락을 지워버리는 물이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2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난숙할대로 난숙해진 서양 근대문학을 직접 만끽한 전혜린이 '민족'이나 '국가'라는 내적 검열의 기제를 의식하지 않고 토로한 정직한 발언이다. 따라서 서구문학을 읽고 번역하는 작업은 전혜린에게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 혹은 서양문학과 한국문학의 거리를 확인하고 질적인 위계화를 승인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그녀가 한국어로 소설을 쓰고 등단이라는 제도를 통과하여 '한국문단'에 입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면에서는 있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국문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놓고 한계나 결여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인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전한 근대적 문학을 상속받지 못한 불모의 세대였던 전혜린에게 직접적인 서구 체험은 그녀의 타고난 기질과 결합하여 전면적이고도 맹목적으로 작용하였다. 서양문학에 대한 절대적 옹호와 탐닉을 소설이 아닌 수필류의 글쓰기를 통해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설 장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

15) 이덕희, 『전혜린』(작가정신, 1998), pp.237~8 재인용.

한의 형상적 질료들을 만들어낼 의지와 능력이 전해린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 그녀가 서양문학의 체험을 통해 취사선택한 ‘순수한 이데아’, 정신주의의 추상성은 본래부터가 소설의 요체인 형상성으로 전화하기 힘든 자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낙차와 거리를 갖는 문화, 문학권을 매개하는 번역자의 자리에서 전해린은 일방적인 선망, 전면적인 환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렇다면 전해린이 추구한 문학, 문학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심취한 서양문학의 작가와 작품들을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녀의 수필이나 번역작품을 통해서 소개된 외국 작가들은 헤세를 비롯해, 릴케, 지드, 카프카, 파스테르나크, 린저, 케스트너, 뷔 등 셀 수 없이 많다. 단편적인 감상에 머물고 있는 독서일기 가운데에서 다소 밀도있는 분석의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대상은 역시 헤세의 『데미안』이다. 데미안의 세계에 속하는 “젊음과 인식욕, 지식학의 심볼, 어린 시절의 성에의 기피에 대한 섬세한 대변자, 관념 속의 도피, 자아 예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 등을 열거하며,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분신”이라고 단정한다.¹⁷⁾ 구체적 일상, 평범하고 때로는 비속하며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을 극히 혐오했던 전해린은, 문학을 통해 동일시의 대상을 탐색했고 그렇게 선택된 대상이 바로 데미안이고 헤세의 문학이었다. 사실 헤세의 많은 소설들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심리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정신성과 충동성 사이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으로 양식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16) 번역과 소설 창작을 겸하는 예가 한국문학사에서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사실은, 서구문화와의 낙차가 컸던 근대 식민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서구 문학 작품을 번역했던 소위 ‘해외문학파’의 주요 인물들(김진섭, 이하운, 정인섭, 이헌구 등)이 창작을 겸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필을 쓰게 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수필 장르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김윤식, 『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76), pp.162~3 참조.

17) 전해린, 「두 개의 세계」,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p.235.

이는 전해린의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현실·물질/관념·정신이라는 이항대립과 상통한다. 그런데 헤세가 자신의 소설에서 제공하는 해결책들, 즉 낭만주의적 반자본주의, 현대문화에 대립하는 고전적 시민문화, 내면화·명상·의식 변화 및 의식 확장 등을 통한 상실된 동일성의 재획득,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과 정신성 사이의 화해를 통한 인격 분열의 극복 등은 소외의 실제적 원인들을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¹⁸⁾ 그러나 전해린은 소외의 문제를 사회적 원인과 구조로 접근하지 않는 헤세의 그 점 때문에 그에게 매혹됐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직접 번역 소개했던 에리히 케스트너의 『파비안』에서도 일체의 정치적인 참여나 사회적인 실천을 거부하며 자신의 ‘순수성’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지식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체의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정신세계에 침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순수한’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에 그녀가 경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해린이 추구한 이러한 문학성의 자질들은 ‘사회의식의 결여’, ‘역사의식의 부재’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부산에서 피난시절을 보낸 그녀였지만 전쟁의 폐허와 세상의 가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유학 후 서울에서 4·19를 겪었음이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 줄의 감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5·16과 ‘제3공화국’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밀수선 나포, 2할 이상 잡곡 섞으라는 지시 어긴 음식점 3일간 영업 정지, 무허가 댄스 홀 습격 등”의 ‘제3공화국’의 “활발한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깨끗한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준다면 유니폼 입고 잡곡 먹고도 전 국민이 불만 없이 일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¹⁹⁾ 히틀러와 나치의 광기에 적극 맞서 싸웠던 뮌헨대학의 반항적 전통과 자유를 누구보다도 찬양했던 그녀가 군사 정권의 규율과 독재를 감싸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런데 이처럼 균열된 의식의 심층

18) 볼프강 보이틴 외, 한창운 외 역, 『독일문학사』(삼영사, 1988), pp.522~3.

19)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pp.207~8.

에는 무엇보다 금욕주의가 규율의 부정성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강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전혜린이 열망하는 자유나 강렬한 체험이라는 것은 철저히 정신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녀는 뮌헨의 사람들이 지닌 청빈함, 즉 남루하고 검은 옷을 입고서도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늘 예찬했다. 따라서 유학 중 자신이 겪은 물질적 빈곤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반대로 속물성에 오염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은 그녀의 글 곳곳에서 발견된다. 유학은 한국인들이 옷과 사치와 여행, 사교에 탐닉하는 것을 두고 “나라는 거지 같은 게 돈은 합부로 쓰고 사치에 미친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비난하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물질적·세속적 욕망에 빠진 여성들을 “빨리 무너지는 가상적 자아의 바벨탑”에 간헐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내면세계를 충동하는 다양한 감정이나 욕망의 강렬함도 순간에 불과하다는 허무주의와 닮아 있다. 이는 일체의 욕망을 억압하는 금욕주의로 이어져 정신적 순결과 물질적 청빈함을 덕목으로 강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혜린은 독재 정권의 억압적 규율이 지닌 폭력성을 자신이 추구하는 탈속의 금욕주의와 구별해내지 못함으로써, 그녀가 그렇게 집착한 본질,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세계에 속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문화번역 행위는 한국적 풍토 속으로의 중심 이동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혜린은 번역자라는 문화의 경계 위에서 그 어느 곳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균열하는 불안한 존재로 남게 된다.

4. 본질화된 ‘서양’, 반(反)속물성과 정신주의

전혜린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죽음을 맞기까지의 약 6년 동안 자신이 글쓰기를 통해 재현해낸 ‘슈바빙’이라는 이국의 공간에 대한 향수에 시달렸다. “아스팔트 킨트”로서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전혜린

의 의식 속의 고향은 언제나 슈바빙이었다. 이러한 슬픔과 모멸감의 정서를 표문태는 “마음의 조국을 찾아 헤매는 젊은 세대들의 도착향수”로 설명하기도 했다.²⁰⁾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전혜린이 살았던 곳은 일제에 의해 계획된 신흥도시 신의주, 서울, 그리고 피난하여 잠시 머물렀던 부산 등 대도시이다. 신의주가 그나마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곳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이국적 풍경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촌’이거나, 벽돌 페치카가 놓인 백러시아인이 경영하는 다방과 금발의 러시아 처녀, 백러시아계의 양복점에서 맞춰입은 “소공녀가 입을 것 같은 흰 원피스”, 혹은 아이스크림 등이다. 이국적인 풍경이 혼재하는 대도시를 전전한 전혜린에게 현실의 고향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그녀의 ‘고향은 찾아서 발견해내야 하는 대상으로서, 그것은 바로 슈바빙/독일이었다.

온갖 물질의 결핍과 가난과 노동, 식사 부족,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패기, 오만한 젊음, 순수한 정신, 존엄을 아끼고서 인식에 바쳐지는 정열과 선의, 조금도 외계나 속물과 타협하려고 들지 않는 자기 유지의 노력,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팽팽한 세계가 뭇 대학생의 세계인 것 같았다./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옳은 것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성질에서 우러나온 반항이고, 자기를 외계의 작용으로부터 막으려는 그럼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서 우러나온 빈곤의 감수요, 초연이며 자기 극복이다.²¹⁾

전혜린에 의해 재현된 뭇헨은 “희색의 포도와 레몬빛 가스등”을 일상적 풍경으로 가지고 있으며, 릴케, 토마스 만, 루 살로메 등을 비롯한 문학인·예술가들이 거처한 곳으로, 초속(超俗)적인 생활 양식 속에서 자유의

20) 표문태, 「전혜린과 전혜린의 글에 대하여」,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pp.15~6.

21) 전혜린, 「나에게 옮겨준 반항적 낙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p.74.

전통을 이어가는 낭만적 공간이다. 학생이나 예술가, 작가, 기자 등이 주민의 태반을 이루고 있다는 뮌헨, 특히 슈바빙은 “미쳤다”라는 것도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인정되는 ‘자유’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이처럼 전해린의 엑조티시즘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물이나 사상(事象)에 탐닉하는 차원을 넘어 비가시적인 본질로 관념화되고 신비화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엑조티시즘은 근대의 퇴폐와 절망에 닿아 있으며 현실도피의 낭만주의와도 상통한다.

조선말이나 근대 초기에 소개된 ‘서양’의 상은 말 그대로 근대문명의 생산자였으며, 이때의 문명은 비교적 구체적인 근대 과학문물과 제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문명국인 식민지 조선이 따라 잡아야 할 지향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일본이나, 서양 문명에 대해 품었던 열등감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더해지면 조선이라는 구체적 공간 안에 근대 문명이 건설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해린에 의해 재현된 뮌헨-독일-유럽 문화는 ‘동양’의 약소국 한국이 어떤 경로를 거친다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타자로 다가온다. 따라서 전해린은 노골적으로 “아마 영영 나는 구라파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한 이상한 예감도 있곤 한다. 구라파에 매혹되고 정복당하고 말 것 같은……독일의 비길 데 없는 이성과 선의에 가끔 지고 말 것 같은 나를 발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²²⁾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서양’은 분명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백인국가/문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서양’을 구성하는 내부를 유럽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태도가 은연중 자리하고 있다. 특히 철학이나 문학 등의 인문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한국 전쟁 이후 더욱 유럽 애호로 치우치면서,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식민국 일

22)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p.309.

본이나 신식민주의적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심리는, 구체적인 접촉이나 대면 속에서 선망과 함께 혐오를 동시에 불러왔던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국가들과는 구체적인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까닭에 제국주의의 원조로서의 유럽을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했다. 즉 한국인들에게 일본과 미국은 양가감정의 대상으로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인 반면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수한 동경과 우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²³⁾ 전해린의 경우도 자신이 체험한 뮌헨-독일을 예찬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이고 한정된 체험을 '서양문화' 일반으로 비약하는 우를 자주 범하고 있다. 그녀는 "구라파에는 한국의 전(全) 심각을 합쳐도 모자라 만큼 심각한 사고와 의식으로 살고 있는 극히 순수한 몇 개의 두뇌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만이 구라파의,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단정한다.²⁴⁾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국문화'를 상대적으로 폄하한다.

우연히 S라는 아이를 길에서 보았다. 얼마 전에 미국서 온 아이다. 그애의 우월감(이유없는)과 초연함. 머리·화장·복장에서만 과시하려는, 그곳에만 미국 갔다운 사람의 특성을 가냘프게 유지하려는 초조하고 혼자 거만하고 일반적으로 무례한 태도는 불과 몇 분 사이에도 완전히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애가 나를 못 본 것을 요행으로 알고 나는 얼핏 괴했다. 구토를 느끼면서...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저런 냄새가 날까 봐 겁내면서...전에는 순수하고 소박해 보이기가까지 했던 그애가 저렇게 속화된 것, 완전히 속물이 된 것은 미국 때문일까?²⁵⁾

23) 최인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1963~6)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학생 시절부터 그는 유학의 대상지로서 유럽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영국 소설 같은 데 질게 깔려 있는 어내크러니즘 - 거기서 등장인물들의 의식 속에서 미국은 온전히 변방의 뜨내기 식민지로 칠해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이 어찌면 모르는 동안에 그를 지배했는지도 모른다."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가면고』(문학과학사, 1993), p.88.

24) 전해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pp.147~9.

25) 위의 책, pp.157~8.

‘서양’의 정수를 체현하는 것으로서의 유럽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선망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시기에 더욱 확산된다. 물론 일반 대중이나 관료적 지식인에게 미국이 새로운 ‘로마’로 부상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조경제 속에서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이미지는 분명 압도적인 것이었다.²⁶⁾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서양적인 것’, 혹은 ‘서양문화’의 본질을 운위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인문학도들은 ‘서양’의 내부를 위계화한다. 즉 유럽의 표상은 철학과 예술로 대표되는 ‘정신적인 세계’이며 반대로 미국의 표상은 역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주로 자본과 기술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세계’라는 이분화이다. 물론 이러한 이항 대립적 표상화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지식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온 그들의 담론 방식으로서, 유럽의 사상과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의식을 모방·이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의 차이를 표면화하고 있는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인종 관념이 매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인종 국가로서의 미국의 잡종성, 특히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작용했으며, 다인종, 다민족이 만들어 내는 혼종적인 미국문화를 ‘훼손된,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근본주의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다. 문제는 미국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아니라, ‘서양’ 내부의 위계화를 통해 순수한 것으로 재구성

26) 1950년대는 미군들을 통해 접한 ‘GI문화’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주한 미군방송을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보면서 미국식 행동양식을 흉내내면서 급속한 미국화가 이루어진다. (임희섭, 『해방후의 대미인식』, 유익영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역사적으로 본 형성과정』(민음사, 1994), pp.236~244 참조) 유선영은 2차 대전 이후 대중문화에서의 미국화와 수준저하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통해 확산되었던 미국화는 후진국들에게 결여된 것들, 즉 기술과 풍요, 역동성, 자유, 강력한 국가, 근대성의 이미지와의 비교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유선영, 『황새 식민지의 문화정체성-아메리카나이즈드 모더니티』, 『언론과 사회』, 1997년 겨울호, pp.88~91.

되는 '본질적인 서양'이라는 관념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과 세계대전으로 얼룩진 유럽의 부정적 이미지를 미국이라는 타자에 전이시킴으로써 자기를 구원해내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로부터 국가 재건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던 1950~60년대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이상화된 '서양/유럽문화의 이미지가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50년대 중반부터 유럽 유학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들이 귀국 후 대부분 교육이나 저술, 창작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유럽중심적 의식과 문화를 '고급'한 것으로 확정·유포하는 데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유럽적인 서양'을 내면화한 인문학 엘리트들이 근대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 등을 '미국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순수한 '서양적인 것'의 목록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신화화된 '서양'의 상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혜린의 의식세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질화된 '서양'을 동일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한국의 인문학 엘리트들의 내면에는, 분단과 전쟁, 4·19 혁명과 군사 쿠데타, 미국의 신식민주의, 그리고 군사 독재로 이어지는 엄혹한 시대 속에서 현실의 속물적 부정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5. 고립된 비범성, 인텔리 여성작가의 운명

천재적인 여성 인텔리의 요절에 대해 대중들이 만들어낸 신화화의 아우라는 평범성과 속물성에 오염된 그들의 욕망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는 어쩌면 화려한 풍문에 비해 소박한 대상일지도 모른다. 번역자의 자리에서 그녀가 겪었을 환희와 절망의 딜레마를 제외하면, 순수한 정신주의, 금욕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녀의 문학성, 그리고 이국취향의 맹목성이 결과한 유럽중심주의는 명료하다 못해 단순하다

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전후의 황폐함과 군사독재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성적인 우울에 시달렸을 당시의 대중들에게 전혜린이 끼친 매혹은 결코 폼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혜린이 추구한 문학은 근대의 속물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속물근성에 대한 혐오가 금욕주의적 탈속의 정신을 '뮌헨/유럽'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를 '미국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이끌었다. 이는 귀국 후 목격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세태에 대한 그녀의 부적응과 고립은 심화되었다. 그녀가 토로한대로 “의식 밑의 심층에 뿌리 박히는 선자 의식이 콤플렉스로 되어 버리고 커갈수록 고립주의, 독선주의”가 강했던 전혜린은 60년대 한국 사회의 속물성과 끝끝내 불화하였다. 어쩌면 그녀의 돌연한 죽음도 현실을 압도하는 비루한 물질성과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컨대 전혜린의 세계는 육체와 물질을 배제한 정신과 관념,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개인주의·자유주의, 현실의 고향과 민족을 괄호쳐 버린 ‘유럽/서양주의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의 여성 엘리트가 한국 사회에서 부딪혀야 했던 이중 삼중의 억압과 고통을 감안한다면 전혜린에 대한 일면적인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문학사에서 전혜린의 존재를 배제시키는 논리의 저변에는 한국문학이라는 제도의 보수성과 편협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녀의 글쓰기가 주로 수필이라는 주변 장르에 국한되었고, 외국문학의 번역 작업에 몰두했다는 것, 인텔리 여성으로서의 돌출된 개인사가 신화화되어 소녀 취향적 대중성으로 향수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엄숙한’ 한국문학 혹은 문단의 경계 밖으로 배제시키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중심 장르로서의 시와 소설, 문학 권력의 대표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르인 비평,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글쓰기는 대접받지 못하는 한국문학의 영토에서 전혜린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특히 번역이라는 영역을 단순한 외국

어 능력 혹은 기술 정도로 폄하하는 한국 지성계·출판계의 풍토 또한 그녀의 문학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적 한국 문단이, 부자집 딸로 태어나 타고난 천재성을 '사치스러운' 정신세계에서 허비해버린 미성숙한 여성으로 전해린을 바라보는 한 그녀의 존재의미는 복원되기 힘들다. 따라서 '전혜린'이라는 텍스트를 지금 다시 호명하는 작업은 한국문학 혹은 남성중심주의 문학의 완고성을 문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참고문헌

- 고 은, 『1950년대』, 청하, 1980.
- 김윤식, 「침묵하기 위해 말해진 언어」, 『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74.
- _____, 『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_____, 「전혜린 재론-60년대 문학인식의 종언」, 『작가와와의 대화』, 문학동네, 1996.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3.
-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문화정체성-아메리카나이즈드 모더니티」, 『언론과 사회』, 1997 겨울.
- 유익영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역사적으로 본 형성과정』, 민음사, 1994.
- 이덕희, 『전혜린』, 작가정신, 1998.
- 정규용, 『글동네에서 생긴 일』, 문학세계사, 1999.
- 최재봉, 「일인칭 단수대명사의 세계」, 『자유라는 화두』, 삼인, 1999.
- 차봉희 편,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1,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 더글러스 로빈슨(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 동문선, 2002.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 볼프강 보이팅 외(한창운 외 역), 『독일문학사』, 삼영사, 1998.
- Sakai Naoki,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Abstract

Writer in the Outside of Boundary

— on the Text of 'Joen Hye-lin' —

Soe, Eun-Ju

In this article, I examined Joen Hye-lin's life and literature, focusing on their relation of the literary system of Korea and the unique cultural site that her position as a translator placed in. Joen has excluded from the boundary of the 'stern' Korean literary history, for she wrote mainly essay seen as a marginal genre, or translated foreign literary works, in addition her abnormal biography as intellectual woman had mythologized and enjoyed as a girlish taste. System like 'Shinchoon Munyae' that literary men made their debut got utilized as a gate of rising the world to compensate for poverty and desolation postwar. In this male central literary world of Korea in the 1950's~60's, she was a heterogeneous being who was a bourgeois woman and a liberalist experiencing directly the Western culture, very different from 'a careful literary woman.'

She had convicted distance of 'the Western culture' and Korean one and made their hierarchy, through translating the western literature, which was the reason she couldn't root in the society and the literary world of Korea. As it were, her spiritualism and stoicism, which she experienced and learned from the western literature, made her be look down upon Korean society and literary world controled by philistinism. In her thoughts, 'the European' and 'the American' was matched with each spiritualism and materialism, and only the former was represented as pure and mythologized image of 'the Western.' This Western image

evoked mass echo. However, identifying with the Western essentialized, she tried to resist against the philistine negativity in realities which, in conclusion, made her life and literature place in the outside of concrete realities.

key words : the Korean literary system, marginal genre, essay, translator, stoicism, the Western culture essentialized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